

목포항 거점항만 육성 국고 반영 '올인'

국제여객선 터미널 추가 확충·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 시, 16개 사업 4차 국가항만 기본계획 포함 위해 총력

목포시가 목포항의 거점항만 육성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정부의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목포항 관련 16개 사업이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16개 사업 중 ▲국제여객선 터미널 추가 확충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목포 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목포 내항 레저선박 전용 계류시설 ▲목포 삼학도 항만친수시설 조성 ▲목포 내항 해상보행교 조성 ▲목포 대반동 수제신 정비 ▲목포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 등 8개 사업만큼은 반드시 4차 국가항만계획에 반영되도록 강력 요청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들 8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542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의 미래 먹거리가 관광이라면 목포 발전의 DNA는 바다에 있다"고 강조하고 "목포 발전의 명운이 달렸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들 사업이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먼저 목포 국제여객선 터미널은 국제항로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주항로의 여객과 화물 수요가 폭증해 선박이 대형화되고 있지만 접안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계류 시 위험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1998년 준공된 터미널이 21년이 경과되면서 노후화 돼 이용객 편의성이 저하되고 안전성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주차장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내·국제 여객선 대형화에 따른 접안 능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카페리부두(1만211m) 외에 추가로 2선석(제2, 제3부두 규모 3만/230m)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화물 야적장과 주차장 부지도 추가 확보에 나선다. 2021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5년 내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비는 11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목포 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을 위해 기존 삼학도 3만급 부두 위치와 개발규모를 변경해 신항에 10~15만급이 접안 가능하도록 선석 460m를 연장해 다도해 연안관광 및 동북아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1007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올해 목포수협이 내항에서 북항으로 이

전하면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동하게 돼 사실상 내항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내항의 항만기능 재배치를 위해 레저선박 전용 계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시설은 2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규모로 부잔교 4개소, 크레인 1개, 선박보급소 1개소 등이 들어선다. 개발 시기는 2021년부터 10년간으로 사업비는 200억원 규모다.

특히 외항(삼학부두)는 현재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석탄-잡화 등 화물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기능이 폐쇄된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삼학도 내륙부는 지자체가 공원으로, 연안부두는 해수부에서 항만친수시설로 조성해 지금까지 국가가 활용하던 부두를 항만친수시설로 기능 전환시켜 국가사업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목포 동명동 물양장에서 삼학도를 연결하는 길이 200m, 폭 6m의 해상 보행

교를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1897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 구역과 인접해 도시재생사업과 항만기본계획 연계 시 부처 연계사업(국토부+해수부)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으로 북항 지역은 서해어업관리단과 목포수협 등 공공기관 14개소가 이전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항 배후단지에서 해양대학교(시내버스 종점)까지 길이 910m에 폭 21m의 도로를 개설하는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목포 북항 교통량 분석 등 도로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대략 1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목포항 관련 8개 사업(5400억원 규모)이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사진은 내년부터 기능이 폐쇄되는 삼학부두 전경. 시는 이곳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동명동에서 삼학도를 연결하는 보행교를 놓는 사업도 추진한다. <목포시 제공>



제1회 섬의 날 행사장에 마련된 목포시 홍보 부스 모습.

'섬의 날 행사' 등장들 숨은 노력 빛났다

폭염 속 홍보·시민 참여 독려 국제여객선대회도 응원



백무항 주무관

섬의 가치를 전 국민이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섬의 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 섬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폐막됐다.

특히 지난 8일 섬의 날 개막식 행사에는 점등터위에도 불구하고 4000여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 주최 측은 태풍이 뱃바가 한숨 돌렸지만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참석인원이 기대에 못미칠까 걱정이 많았다.

기념식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크게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걱정이 얼마만큼 컸는지 짐작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성공의 이면에는 목포시 관내 23개 등장들의 숨은 노력이 한몫을 했다. 관제 동원이라고 하지만 역대 관제 동원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동안의 행사에는 통·반장들이 대거 동원됐지만 이번은 달랐다.

행사 2주 전부터 등장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 홍보하고 독려한 결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많은 인원

의 참석으로 이어졌다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분석이다.

강명원목포시자치행정과장은 "굵직한 행사들이 8월에 집중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등장들과 동 산하 자생

조직 대표들이 하나로 뭉쳐 일궈낸 결과여서 더욱 값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목포 국제여객선대회에서도 열린 U-15 동아시아 국제여객선대회에도 지역 23개 동은 저마다 응원 국기를 배정받아 매 경기 때마다 땀 흘리며 응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8개국이가 참가해 모두 24경기가 치러졌다. 24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관중이 없는 경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인구 23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축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열의에 찬 주민들과 축구동호인들이 나서 "한 사람 더 데려가기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섬의 날 행사에서 백무항 목포시 행정정책과 주무관이 유공자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만든다

시의회 심의 거쳐 9월말 공포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목포시는 12일 최근 지역에서 멧돼지 등이 자주 출몰하면서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고 있어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급대상과 범위 규정 ▲피해신고·조사 및 보상절

차 규정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목포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 조례규칙 심의회와 목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9월말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문명식 목포시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관내 양울산 등지에 멧돼지 등이 많이 출몰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대, 미국 호남향우회와 대학발전기금 후원 협약

목포대학교 박민서 총장은 지난 3일 뉴욕에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김영운), 미주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한정용)와 각각 목포대학교발전기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목포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 해외 유학생 지원 등 목포대 발전을 위한 후원회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국의 뉴욕, 뉴저지, 휴스턴, 달라스, 시애틀 등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목포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 지난 5일 뉴욕한인회(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회장 Charles Yoon)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목포대 학생들의 뉴욕 진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양 기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호남향우회는 미국, 유럽,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뿌리를 내린 호남 출신 기업인들로 구성됐다. 매년 10월 고향을 찾아와 '호남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출신의 후배들에게 호남인의 정기를 이어가는 장학금을 지원(2018년 8800만원)하고 있다. 올해 호남인의 날 행사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남도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수협, 상반기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 1위

목포수협이 최근 수협중앙회에서 전국 90개 회원조합과 451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에서 회원조합 B그룹 1위를 달성했다.

목포수협은 침체해 있는 상호금융사업 도약을 위해 상호금융사업 구조개선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수도권 신규점포 진출 및 점포재배치 등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전국 수협 2019년 상반기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 B그룹 1위를 달성하고 서울 독립문지점 상호금융 수신 실적증대 캠페인에서 그룹 2위에 선정됐

다.

또 연체감축 프로모션 실적 우수조합으로 선정돼 수협중앙회로부터 포상금 및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상호금융사업 전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 침체되어있던 상호금융사업 분야에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구조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사업실적을 토대로 지역어업인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선박대출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지원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호남동 대원 빌딩 특별 "특별분양"

"특별분양"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분양가 470만원 ~

"추천 업종"

- 1 높은 전용률 확보인 전망
여유로운 주차 (300대 이상 주차공간)
- 2 볼링장, 골프존 10~12층
11, 12층 천정고 6m
- 3 특급 한방병원 4~9층
일반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A.P.T 모델 하우스 1~3층

분양문의 : (주) 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